

# 별들의 낙원, 피스랜드 (Peace Land)[트리트먼트]

## 1. 개요

- 장르: 판타지 다큐멘터리, 힐링
- 러닝타임: 약 5~6 분
- 핵심 주제: "우연이라 믿었던 자연의 경이로움, 그 배후에 숨겨진 요정들의 다정한 시선"
- 비주얼 스타일: 빛의 산란과 풀잎의 움직임이 강조된 수채화 톤의 지브리 스타일 미학

## 2. 등장인물

- 기록 요정: 지구의 다정한 순간을 망원경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서술자
- 설계 요정: 지형을 계산하고 숲과 폭포의 배치를 기획하는 완벽주의 전략가
- 기후 관리 팀: 햇빛, 바람, 비, 구름, 번개, 눈을 담당하는 6 인의 요정들
- 인간들: 길고양이를 돌보는 소녀 '하나', 화분을 가꾸는 '나무 할아버지' 등 자연과 교감하는 평범한 이웃들

## 3. 줄거리 구성

① 도입: 푸른 구슬의 관찰자들 (0'00" ~ 1'30") 우주의 고요함 속에서 기록 요정은 황동 망원경으로 지구라는 작은 정원을 관찰합니다. 렌즈 너머에는 아이의 첫 걸음마에 환호하는 부모, 비 오는 거리에서 길고양이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소녀, 베란다의 작은 화분을 어루만지는 노인의 손길 등 인간 세상의 '다정한 기록'들이 가득합니다. 평화로운 관찰 도중, 요정들은 구름 뒤에 숨겨진 채 생명력을 잃고 메마른 회색빛 황무지를 발견합니다. 이 척박한 땅을 외면할 수 없었던 설계 요정은 그곳에 '별들의 낙원'을 건설하기로 결심하고 마스터플랜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② 전개: 다정한 태풍, 바람 비단길 (1'30" ~ 3'30") 낙원을 만들기 위한 거대한 아주 작전인 '바람 비단길'이 가동됩니다. 지상의 인간들은 갑작스러운 태풍 소식에 창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지만, 요정들의 시점에서는 이는 아주 섬세한 배달 작전입니다. 바람 요정은 빛의 막으로 꽃씨와 묘목들을 안전하게 감싸 안아 목적지인 황무지로 조심스럽게 옮깁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인간 세상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요정들이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고된 가드닝을 시작합니다.

③ 절정: 3 년의 기다림과 기적의 타임랩스 (3'30" ~ 5'30") 요정들은 3 년이라는 시간 동안 밤낮없이 황무지를 돌봅니다. 햇빛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단비를 내리며 대지를 달립니다. 때로는 뜨거운 태양과 마른 땅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8 명의 요정은 서로 협력하며 정성을 다합니다. 마침내 대지가 반응하기 시작하고, 화면은 경이로운 타임랩스로 전환됩니다. 계절이 수십 번 교차하며 회색 땅은 초록빛으로 물들고, 묘목들은 거대한 나무로 솟구치며, 절벽 사이로는 웅장한 폭포가 터져 나옵니다.

④ 결말: 오늘도 정원은 평화롭다 (5'30" ~ 6'00") 완성된 '피스랜드'에 인간들이 찾아와 그 경이로운 광경에 감동하며 잃어버렸던 평화와 치유를 얻습니다. 인간들은 이를 그저 '기적' 같은 자연'이라 믿지만, 요정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들의 일터인 관측소로 돌아갑니다. 기록 요정은 오늘도 지구의 평화를 확인하며 기록장에 마지막 문장을 남깁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꾸는 이 정원은 평화롭다."